

식목철, 사과·배·단감 품종 소개

농진청, 맛·식감 뛰어나고·수확기 다양... 재배도 용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수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맛과 식감이 뛰어나고 수확기가 다양한 우리 과일 품종과 특성을 소개했다.

먼저, 당도와 식감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 맞는 사과로는 '이리원', '이지플', '갈로'가 있다. 대다수 소비자에게 맛으로 인정받은 '감홍'과 '홍로'를 육종 소재로 만들었다.

'이리원'은 이른 추석 맛볼 수 있는 품종으로, 당도 16.2브릭스(Bx), 산도 0.34%로 단맛과 신맛이 조화롭다. 수확 시기는 8월 하순이다.

'이지플'은 껍질에 색이 잘 들고 당도가 16.7브릭스(Bx)로 높으며 해거리가 거의 없다. 지난해 유통인 대상 시장성 평가 결과, 비슷한 시기 수확하는 '홍로'보다 모양, 당도, 당산 비율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



단감 '감홍'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고 있다. 크기가 크고(400g 정도) 당도 15브릭스(Bx)로 기존 감에서 맛볼 수 없는 달고 아삭한 식감을 지니고 있다.

도입 품종(태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껍질 터짐으로 인한 오염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리장해도 거의 없다.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다.

'연수'는 껍질째 먹기 좋고 식감이 아삭하며 과즙이 풍부하다. 크기는 230g 내외, 당도는 17브릭스(Bx)이다. 역시 생리장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쉽고, 싹 트는 시기 지은 피해가 적으며, 수확(10월 중순)이 빨라 서리 피해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봉황'은 단감은 물론, 홍시로도 즐기기가 좋다. 생리장해가 전혀 없어 재배가 쉽고 꽃봉오리가 적게 형성돼 노동력을 50% 정도 아낄 수 있다. 크기는 250~300g, 당도는 16.1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10월 말이다.

단감의 경우 '감홍'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을 받

고 있다. 크기가 크고(400g 정도) 당도 15브릭스(Bx)로 기존 감에서 맛볼 수 없는 달고 아삭한 식감을 지니고 있다.

도입 품종(태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껍질 터짐으로 인한 오염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리장해도 거의 없다.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다.

'연수'는 껍질째 먹기 좋고 식감이 아삭하며 과즙이 풍부하다. 크기는 230g 내외, 당도는 17브릭스(Bx)이다. 역시 생리장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쉽고, 싹 트는 시기 지은 피해가 적으며, 수확(10월 중순)이 빨라 서리 피해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봉황'은 단감은 물론, 홍시로도 즐기기가 좋다. 생리장해가 전혀 없어 재배가 쉽고 꽃봉오리가 적게 형성돼 노동력을 50% 정도 아낄 수 있다. 크기는 250~300g, 당도는 16.1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10월 말이다.

단감의 경우 '감홍'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을 받

고 있다. 크기가 크고(400g 정도) 당도 15브릭스(Bx)로 기존 감에서 맛볼 수 없는 달고 아삭한 식감을 지니고 있다.

도입 품종(태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껍질 터짐으로 인한 오염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리장해도 거의 없다.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다.

'연수'는 껍질째 먹기 좋고 식감이 아삭하며 과즙이 풍부하다. 크기는 230g 내외, 당도는 17브릭스(Bx)이다. 역시 생리장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쉽고, 싹 트는 시기 지은 피해가 적으며, 수확(10월 중순)이 빨라 서리 피해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봉황'은 단감은 물론, 홍시로도 즐기기가 좋다. 생리장해가 전혀 없어 재배가 쉽고 꽃봉오리가 적게 형성돼 노동력을 50% 정도 아낄 수 있다. 크기는 250~300g, 당도는 16.1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10월 말이다.

단감의 경우 '감홍'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을 받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6일, 본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2024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청렴 문화 확립 박차 계기”

전기안전공사, 창립 50주년 맞아 청렴·윤리교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의 올바른 청렴 의식 확립을 위한 2024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주관으로 CEO, 상임감사, 임원 등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반부패 청렴 연극 '갑질브레이크' △전문강사의 '청렴강연'으로 구성하였으며, 청렴 연극을 통해 퇴직자 사적 접촉 위

력에 의한 갑질 등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교육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의 청렴·윤리경영 교육으로 관리자부터 신입직원까지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지현 사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 덕목이며, 이 시간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 문화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양동구 광주시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전주상의, 일자리 창출·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세정지원 강화 노력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6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시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정 간담회는 최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 국세청의 기업지원 정책 및 세정 지원 제도 홍보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시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이 우대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시방국세청장은 “기업 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납세자와의 외부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방국세청은 세정지원 및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와 세정 지원방안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분할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요건 완화 △소기업 매출액 기준 초과 시 유예 적용 △기업상속 공제요건 중 가업영위 기간 완화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김옥기 기자

지리산농협, 조합원자녀에 총 2400만원 장학금 전달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은 최근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고 지역 사회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합원자녀 24명에게 1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리산농협은 200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662명에게 5억707만원을 지원하며 지역의 인재 육성에 동참하고 있다.

정대환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자녀에게 대학입학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의 교량이 될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민연금공단, 제1차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26일 공단 연금홀에서 2024년도 제1차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북지역 주요 자체감사기구 간 협의회(이하 전감회)로,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교육청,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병원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감회는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간

상호협력력을 바탕으로 자체감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갖는 첫 회의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회의에는 2024년도 전감회 회장사(社)인 국민연금공단 류지영 감사장비로써 국토정보공사 이태용 감사, 전기안전공사 권재홍 감사, 전북특별자치도 양충모 감사위원장 등 전북지역 주요 기관의 감사 9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그 간의 전감회 주요성과 공유 △2024년 전감회 주요 활동 방향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6일 공단 연금홀에서 2024년도 제1차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및 향후 일정 논의 △청렴전북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옥기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제공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휴기)은 지난 26일 관내 농업인 조합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사업을 개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정읍남매안경원, 정읍시농·축협,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는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찾아가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 검안·돌보기 지원 등 웰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령농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는 농업인 실의 지원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아산 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협안, Xray, 심전도 등 건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에서는 스케일링과 구강검진(불소도포)을 실시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행복사진을 촬영하고 액자사진을 제공한 예정이며, 정읍 남매안경원에서는 개인별 검안 후 맞춤형 돌보기 및 시력교정용 안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행사장 입구에 푸드트럭(음료)



를 운영하여 찾아오시는 농업인들에게 여전히 쌀쌀한 아침공기를 녹일 따뜻한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황토현농협은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운영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에 대한 반찬 나눔, 하계 한방의료봉사, 찾아가는 영화관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은 한 농업인은 “시내까지 방문하기 어려움이 있어 건강검진을 미뤘었는데 직접 찾아와 진료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휴기 조합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